



2021년 8월 29일(제1050호) 연중 제22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나의 신앙생활이 향하고 있는 곳은?”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느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소유권, 사법 질서와 같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식, 거룩한 날에 대한 언급과 축제처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정한 것들과 이별하게 하면서 흠 없이 온전히 하느님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게 방향을 잡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율법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머물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권력화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때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로마노 가르디니는 「주님」에서 정통주의(Orthodoxy)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식과 그 가르침을 옹호하는 권위 체계가 생겨나자마자 올바른 가르침을 견지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의 위험성, 다시 말해 ‘정통주의’(Orthodoxy)의 위험성이 생겨난다. ... 법제화된 구원의 규칙들, 제사 의식, 공동체의 질서들이 생기면 동시에 곧바로 이런 것들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라고 여기는 위험성이 생겨난다. 직책과 권력, 전통과 법의 위계질서가 갖추어지면, 권위와 복종의 삶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보는 위험성이 생겨난다. 거룩한 규범들이 설정되고 정의와 불의가 나누어지면서, 하느님의 자유를 침해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법 속에 가두는 위험성이 생겨난다. 아무리고결한 생각도 인간의 마음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즉시 모순과 허위와 사악을 도출시킨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그와 같이 된다. 신앙 행위와 기도의 질서, 교계제도, 계율, 전통과 관습 등은 진실로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과 정신 속에는 그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보여준 모습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마르 7,5)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마르 7,8)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마르 7,14-15) 예수님께서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문제라 하십니다. 로마노 가르디니의 말처럼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는 좋은 것들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레지오 활동이 있을 것이고, 각종 기도 모임이 있을 것이며, 한 단체에 들어가 성당에서 활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따지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숙하게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역시 또 다른 모습의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야고 1,22) 오늘 제2독서로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김승태(미티아) 신부
명실(15사단) 상당 주임

- | | |
|---------|---|
| 제 1 독 시 | 신명 4,1-2.6-8 |
| 회 답 송 |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 제 2 독 시 | 야고 1,17-18.21-22.27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
| 복 음 | 마르 7,1-8.14-15.21-23 |
| 영 성 제 송 |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이혼 번째 시한

그는 경솔하게도 한 유력한 관리의 아내를 빼앗음으로써 그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상귀’(Ou-sang-koui, 吳三桂)란 이 관리는 그 강탈자를 추격하기 위해 봉천의 새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추양왕’은 겁이 나서 남쪽 지방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활한 한왕은 자기의 둘째 아들 순치(順治)를 보내 북경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달단 만주 왕조(즉 청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치는 강희(康熙)의 아버지인데, 강희제의 치세 동안 한때 중국 전체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할 희망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다소간 천주교를 박해한 그의 후계자 옹정(雍正), 건륭(乾隆), 가경(嘉慶), 도광(道光) 황제들의 치세 아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월 20일(양력 1844년 3월 8일) 경원의 조선 관장이 이튼날(양력 3월 9일)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훈춘으로 보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우리, 즉 저와 저의 동행은 서둘러 시장으로 갔습니다. 읍내 어귀에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에는 흰 손수건을 들고 허리띠에는 붉은 색깔의 작은 차 주머니를 차고 군중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조선 밀사들이 우리를 알아보도록 약속된 표였으며,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접근하라는 표였습니다.

우리는 읍내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날 약속을 어긴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말에 물을 먹이러 읍내에서 3백 보 떨어진 개천으로 갔을 때, 우리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말로 말을 걸었으나 그는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로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韓)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묵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우리가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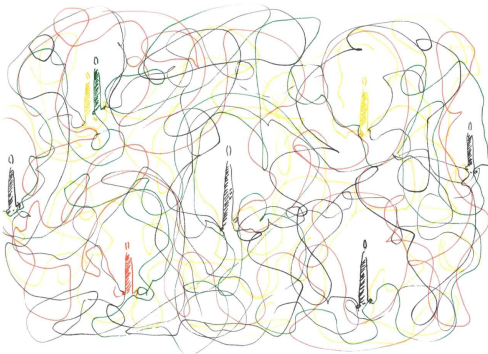
나,
혼자만이 아니야.
우리가 그래.

이 세상의
모습을 만들지.

우리 모두가 그래.

우리가
흘리고 다니는
모든 것이

나뿐만이
아니고.



상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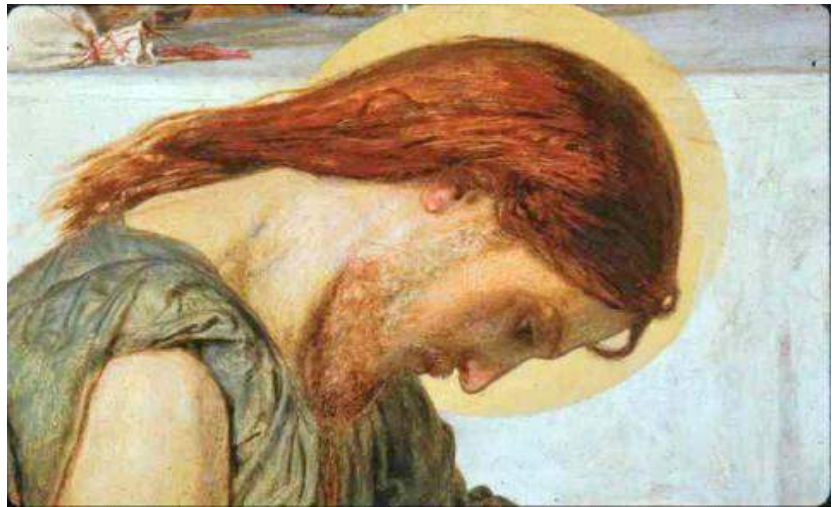
베드로 성인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최후의 만찬 시 베드로 성인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인데, 마치 우리가 바로 코앞에서 이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우리도 맨 왼쪽의 제자처럼 신발끈을 풀면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이 말이다.

포드 매튜스 브라운
1852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희, 116 × 133cm
테이트 미술관, 영국 런던

팔을 걷어붙이시고,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고, 정성을 다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에서 그 겸손함이 느껴진다. 무슨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한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뒷배경의 일부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2주일: 명상대 박기훈 신부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2)’ 인니

- 네이버 오디오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미태 24,45)